

연구보고서 2019-17

2019 생활시간조사 변경 항목 검토 연구: 인지면접

박주언 · 박선희



Statistics Korea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발간사

21세기 데이터 혁명시대에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통계는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통계는 개인과 기업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결정에 필수적인 도구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통계청은 빅데이터의 활용,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간의 연계 등과 같은 통계생산 방식의 혁신을 통해서 응답자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보다 정확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통계를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청의 싱크탱크로서 전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통계개발원은 국내의 유일한 「국가통계 전문연구기관」입니다. 통계개발원은 2006년에 창립한 이래 국가통계방법론과 증거기반 정책연구 분야에서 창의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의 조사통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각종 추계기법과 관련된 통계방법론적 연구는 물론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경제·사회현상에 대한 심층 분석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현상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구집단 및 인구동향에 관한 분석연구 및 인구동태 관련 방법론 연구를 밀도 깊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를 중심으로 통계개발원은 「2019년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19년 연구보고서」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이용한 집세 물가
지수 작성방안 연구 등 「행정자료 활용」 관련 연구를 비롯하여 세대별 니스(NEES)
특성 분석 등 「인구·사회통계」 기반 정책연구는 물론이고 통계기반정책평가 표준
화 연구 등 「정책활용방법」 관련 통섭적인 연구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
방법론 분야에 있어서 동 연구보고서는 국민법의식조사 조사표 개선연구 등 「인지
실험 기반 조사방법론 연구」 및 차등정보보호 적용 실험 연구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혁신적인 연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계개발원은 본 연구보고서가 데이터 사용자의 통계활용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
고 국가통계생산자의 혁신적인 통계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
니다. 내년이면 15주년을 맞는 통계개발원이 “국가통계의 싱크탱크”로서 대내외적
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가통계의 개선과 혁신적 개발을 위하여 제언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십시
오. 겸허히 귀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실용적이고 품질 높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연구진에게 따스한 감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 및 결과는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통계청 또는 통계개발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2020년 5월

통계청 통계개발원장



전 영 일

목 차

제1장 서론	1
제2장 연구방법	2
1. 조사표 구성	2
2. 참가자	8
3. 수행과정	10
4. 프로빙 지침	11
제3장 연구결과	13
1. 감정 상태	13
2. 함께 한 사람	25
2. 기타	31
제4장 종합논의	32
참고문헌	37
부록	38

요 약

2019년은 제5차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는 해이다. 2017년, 2018년 두 차례 시험조사와 2018년 인지면접 방법을 통한 1차 시험조사표 검토 연구 등으로 2019년 생활시간조사 조사표(안)이 마련되었다. 이 연구는 조사표 확정을 앞두고 전과 비교해 2019년 조사표(안)에서 변경된 항목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응답자 관점에서 변경 항목을 평가하기 위해 26명의 일반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응답과정을 심층 면담하는 인지면접(cognitive interviewing)을 실시하였다. 참가자가 사전 배부받은 조사표에 2일간 시간 일지를 작성하여 조사표실험실에 재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019년 조사표(안)의 핵심 변경 항목인 시간일지의 '감정 상태'와 '함께 한 사람' 항목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으며, 발생한 오류는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확인된 응답특성과 오류를 토대로 조사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변경 항목에 대한 응답특성과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 파악하여 완성도 높은 생활시간조사 조사표 설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주요 용어 : 생활시간조사, 조사표, 인지면접

제1장 서론

생활시간조사는 국민들이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 자료를 수집하여 국민의 생활방식(Life Style)을 측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생활시간조사 결과는 가사노동 등 무급노동 및 비시장 생산에 소요된 시간을 분석하여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 양성평등, 노동, 복지, 문화, 교통 등에 대한 정책수립과 학문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통계청, 2018).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1999년 생활시간조사가 처음 도입되었고 그 후 5년 주기로 2004년, 2009년, 2014년에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2019년에는 제5차 조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통계청은 2019년 제5차 생활시간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시험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표 설계에 초점을 맞춰 그간의 노력을 살펴보면, 2017년 1차 시험조사에서는 2014년 제4차 조사 이후 시간일지(time-diary)에 새로운 조사항목(‘ICT 기기’, ‘만족도’)을 도입하는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2018년에는 통계개발원에서 시간일지의 신규 항목을 중심으로 1차 시험조사 조사표 전반에 대한 응답과정을 인지면접(cognitive interviewing) 방법으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2차 시험조사 조사표 설계에 반영하였다. 2차 시험조사 후 조사 결과와 전문가 검토 내용을 종합하여 2019년 생활시간조사 조사표(안)을 마련하였다.

2019년 생활시간조사 조사표(안)을 2018년 인지면접 연구에서 검토한 조사표와 비교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시간일지에 속한 ‘감정 상태’ 항목의 구성과 ‘함께 한 사람’ 항목의 조작적 정의가 변경된 것이다. 이러한 주요 변경 사항을 실제 조사에 적용하기 전에 응답자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응답을 도출했는지, 발생한 오류는 무엇인지 등을 심도 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9년 생활시간조사 조사표(안)에서 2018년 인지면접 연구 후 변경된 항목에 대한 응답과정을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¹⁾ 이를 통해 2019년 본 조사에 대비해 변경 항목에 대한 응답특성과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 완성도 높은 조사표 설계를 지원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인지면접 방법을 적용하였다. 인지면접은 응답자가 질문을 읽고 응답하면서 떠오르는 사고의 과정을 말로 표현하고, 이러한 응답과정²⁾을 탐색함으로써 응답자

1) 핵심 변경 항목 중 ‘감정 상태’는 2018년 2차 시험조사 후 변경되어 2019년 본 조사까지 대규모 현장 시험 조사를 통한 사전 검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이 본 연구를 추진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 응답과정 이론 중 가장 간단하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Tourangeau(1984)의 4단계 모델에 따르면 응답과

관점에서 조사표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이다(Willis, 2005). 인지면접은 준비, 수행, 결과 분석의 세 단계로 추진하였다([그림 1]). 준비 단계에서는 조사지침서 등을 검토하여 조사표를 분석하고, 인지적인 쟁점(issue)이 예상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참가자의 응답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프로빙(probing) 질문 목록인 프로빙 지침을 작성하였으며,³⁾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자발적인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인지면접 수행 과정은 조사표 실험실 기기를 활용하여 녹화(녹취 포함)하고, 면접원은 프로빙 지침에 따라 참가자의 응답과정을 탐색하면서 면담내용을 기록하였다. 인지면접 완료 후에는 녹취 자료를 전사(transcription)하고, 면담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확인된 응답오류와 응답특성을 토대로 조사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림 1] 인지면접 적용 연구 절차: 준비, 수행, 분석

제2장 연구방법

1. 조사표 구성

인지면접은 2018년 2차 시험조사 후 마련된 2019년 생활시간조사 조사표(안)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조사표의 전체적인 구조는 전과 동일하며 가구 구성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조사하는 가구 관련 사항과 개인의 주관적인 의식 및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는 개인 관련 사항, 2일간 응답자가 한 행동을 10분 단위로 일기 쓰듯이 직접 기입하는 시간일지 그리고 시간일지 작성 일에 관한 부가적인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⁴⁾ 본 연구에서 검토하

정은 질문 이해(comprehension), 정보 인출(retrieval), 정보의 판단(judgment), 응답보고(response)로 구분된다.

- 3) 프로빙 기법은 질문을 통해 응답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인지면접 이전에 프로빙 질문을 구성하고 이를 활용하는 표준화된 구조 방식을 기반으로 면담 중 필요한 탐색질문을 추가하는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따라서 준비 단계에 프로빙 지침 작성이 포함되어 있다.
- 4) 생활시간조사 조사표에서는 시간일지와 시간일지 부가항목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시간일지’로 명명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용어 사용의 혼동을 방지하고 명료한 이해를 위해 포괄적인 시간일지 영역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자 한다.

는 2019년 조사표(안)의 주요 변경 항목인 ‘감정 상태’는 시간일지 부가항목⁵⁾이고 ‘함께 한 사람’은 시간일지 내 항목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2019년 조사표(안)에서 ‘감정 상태’와 ‘함께 한 사람’ 항목이 각각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변경되기 전과 비교해보았다.⁶⁾

가. 감정 상태

1) 2019년 조사표(안)

2019년 조사표(안)에서 ‘감정 상태’ 항목은 시간일지 작성 일에 관한 부가적인 질문으로, 첫째 날과 둘째 날 각각의 시간일지 다음 페이지에 [그림 2]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간일지 작성 일 전체와 8가지 행동 각각에 관한 기분을 7점 척도(매우/상당히/약간 좋음, 보통, 매우/상당히/약간 나쁨)로 조사하는데 매트릭스 형태로 질문이 구성되어 있다. 8가지 행동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자원봉사, 교제 및 참여활동, 문화 및 여가활동, 이동으로 이루어져 있다.⁷⁾ 매트릭스 형태의 조사항목 하단에는 시간일지 작성 일에 해당 분류의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표시하도록 지시하고, 혼동이 우려되는 일부 행동범주에 관한 설명과 예시를 참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조사항목 변경사항

‘감정 상태’ 항목은 2019년 제5차 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7년에 실시한 1차 시험조사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시간일지 내에 포함되어 10분 단위로 행동을 기입하고 해당 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2차 시험조사에서는 10분 단위로 조사하는 형식은 동일하였고, 항목명과 질문 및 척도 문구에서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후 응답부담과 조사결과와 신뢰도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19년 조사표(안)에서는 [그림 2]와 같이 시간일지에서 분리된 부가항목으로 변경되었다. 2019년 조사표(안)은 시간일지 작성 일의 전체적인 기분과 8가지 행동분류별로 각각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는지 회상하고, 한 범주에 한 가지 이상의 행동을 했다면 포괄적으로 해당 범주의 기분이 어떠했는지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표 1>).

5) 2019년 조사표(안)의 시간일지 부가항목에는 ‘감정 상태’ 외에도 ‘건강 상태’, ‘근무·등교 상태’, ‘방문자 정보’ 항목이 있다.

6) 이 밖에도 2019년 조사표(안)은 개인 부문에 ‘일자리의 분류’ 조사항목이 추가되는 등 일부 변화가 있었다.

7) 8가지 행동은 생활시간조사 행동 대분류에 근거하여 구성되었다.

1 귀하는 시간일지를 작성한 첫째 날 아래의 각 사항에 대하여 기분이 어떠하였습니까?

	매우 좋음	상당히 좋음	약간 좋음	보통	약간 나쁨	상당히 나쁨	매우 나쁨	해당 없음
① 일(수입을 위한 일)	<input type="checkbox"/>							
② 학습	<input type="checkbox"/>							
③ 가정관리(음식준비, 청소 등)	<input type="checkbox"/>							
④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input type="checkbox"/>							
⑤ 자원봉사	<input type="checkbox"/>							
⑥ 교제 및 참여활동	<input type="checkbox"/>							
⑦ 문화 및 여가활동	<input type="checkbox"/>							
⑧ 이동	<input type="checkbox"/>							
전체적인 기분	<input type="checkbox"/>							

* 시간일지를 작성한 첫째 날에 하지 않은 행동의 경우 '해당없음'에 표시합니다.

참고

- ③ 가정관리 : 가족 또는 가구의 가정생활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행동 (남의 집 가사 일을 돕는 행동은 포함하지 않음)
*(예) 음식준비, 세탁 및 다림질, 청소, 주거관리, 반려동물 돌보기, 쇼핑하기 등
- ④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 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및 형제자매) 또는 가구원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살피는 행동
*(예) 자녀 책 읽어주기, 자녀와 놀아주기, 부모님 간호하기 등
- ⑥ 교제 및 참여활동 : 사교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는 행동 및 국가, 사회일에 의무 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
*(예) 이웃과 대화, 친구와 전화로 잡담하기, 예비군 훈련, 조사표 작성, 녹색 어머니, 집회 참여 등
- ⑧ 이동 :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움직이는 행동 (건물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이동에 포함하지 않음)

[그림 2] 2019 생활시간조사 조사표(안): '감정 상태' 조사항목 원안

<표 1> 생활시간조사 '감정 상태' 항목 변경사항

2014년 제4차 조사	2017년 1차 시험조사	2018년 2차 시험조사 ¹⁾	2019년 조사표(안)																					
-	<p>5. 만족도</p> <p>이 시간을 즐긴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에 표기해 주세요. -3. 전혀 즐겁지 않음 ~ +3. 매우 즐거움</p> <table border="1"> <tr> <td>-3</td><td>-2</td><td>-1</td><td>0</td><td>1</td><td>2</td><td>3</td> </tr> <tr> <td>-3</td><td>-2</td><td>-1</td><td>0</td><td>1</td><td>2</td><td>3</td> </tr> </table>	-3	-2	-1	0	1	2	3	-3	-2	-1	0	1	2	3	<p>5. 감정 상태</p> <p>기분을 나타내는 숫자에 표기 해 주세요.</p> <p>매우 나쁨 ← 보통 → 매우 좋음</p> <table border="1"> <tr> <td>-3</td><td>-2</td><td>-1</td><td>0</td><td>1</td><td>2</td><td>3</td> </tr> </table>	-3	-2	-1	0	1	2	3	[그림 2] 참조
-3	-2	-1	0	1	2	3																		
-3	-2	-1	0	1	2	3																		
-3	-2	-1	0	1	2	3																		

자료: 통계청 2017; 2018.

주: 1) 2018년 2차 시험조사에서는 전체 표본가구의 1/3을 대상으로 시간일지 내에 '감정 상태' 항목을 포함시켜 조사하였다.

3) 추가안

한편 본 연구의 인지면접에서는 '감정 상태' 항목에 관해 2019년 조사표(안)을 기본으로 [그림 3]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조사항목에 대한 검토가 추가되었다.⁸⁾⁹⁾ 이와 같은 두 가지 항목 구성을 구분하기 위해 2019년 조사표(안)의 '감정 상태' 항목을 '원

안’, 지금 제시하는 항목을 ‘추가안’으로 명명하였다. ‘감정 상태’ 항목 추가안은 첫째 날과 둘째 날 각각의 시간일지 작성 후에 마주하는 부가적인 질문이라는 점은 원안과 공통점이다. 그러나 추가안에서는 시간일지 작성 일의 전체적인 기분을 7점 척도로 개별적으로 질문하였다. 그리고 기분이 가장 좋았던 행동과 기분이 가장 좋지 않았던 행동 그리고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던 행동의 내용과 해당 행동의 시작과 종료 시간을 개방형으로 직접 기입하고 해당 행동에 기인한 감정의 정도를 3점 척도로 선택하도록 한다.

1 귀하는 시간일지를 작성한 첫째 날 전체적으로 기분이 어떠하였습니까?

1 매우 좋음 2 상당히 좋음 3 약간 좋음 4 보통 5 약간 나쁨 6 상당히 나쁨 7 매우 나쁨

1-1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기분이 가장 좋았습니까? * 연번 행동분류

● 행동 : _____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 기분이 좋은 정도 : 1 매우 좋음 2 상당히 좋음 3 약간 좋음

1-2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기분이 가장 좋지 않았습니까? * 연번 행동분류

● 행동 : _____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 기분이 좋지 않은 정도 : 1 매우 나쁨 2 상당히 나쁨 3 약간 나쁨

1-3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까? * 연번 행동분류

● 행동 : _____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 스트레스를 받은 정도 : 1 매우 많이 받음 2 상당히 받음 3 약간 받음

[그림 3] 2019 생활시간조사 조사표(안): ‘감정 상태’ 조사항목 추가안

- 8) ‘감정 상태’에 관한 새로운 형태의 해당 질문은 인지면접 시작 후 구상하여 검토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일정 시점 이후 참가자부터 응답반응을 탐색하였고, 조사표와 별도의 용지에 인쇄하여 제시하였다.
- 9) 이러한 조사항목은 유럽통계청(Eurostat)에서 최근 발표한 유럽통합생활시간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Harmonised European Time Use Surveys 2018 Guidelines」(2019))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웰빙이나 만족도를 시간일지 내에 새로운 열(column)을 추가하는 방식 대신 시간일지 작성 후 부가적인 질문 항목으로 조사할 것을 권고하며 표준적인 항목(안)을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에 수록된 해당 권고 항목(안)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나. 함께 한 사람

1) 2019년 조사표(안)

2019년 조사표(안)에서 ‘함께 한 사람’ 항목은 [그림 4]와 같이 시간일지 내에 ‘주로 한 행동’, ‘동시에 한 행동’, ‘ICT 기기’, ‘행위장소 또는 이동수단’ 항목과 함께 일렬로 제시되어 있으며 10분 단위로 조사한다. ‘함께 한 사람’은 ‘① 응답자와 서로 아는 사람으로서, ②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③ 공간을 함께 한 사람’으로 정의한다(통계청, 2018).¹⁰⁾ 공간을 함께 한 사람에 대해 시간일지 도입 부분에서는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그림 5]).

세벽 0시 10	1. 주로 한 행동	ICT기기	2. 동시에 한 행동	ICT기기	3. 행위장소 또는 이동수단	4. 함께 한 사람
	10분 동안 주로 한 행동을 기입합니다.	1. 스마트폰, 태블릿 2. PC, 노트북	주로 한 행동 외에 다른 행동을 동시에 한 경우 기입합니다.	1. 스마트폰, 태블릿 2. PC, 노트북	1. 본인 집 7. 도로 2. 직장 8. 버스 3. 학교 9. 지하철·철도 4. 남의 집 10. 택시 5. 기타(실내) 11. 승용차 6. 기타(실외) 12. 자전거 13. 기타교통	1. 혼자 2. 배우자 3. 만10세 미만(손자녀) 4. 만10세 이상(손자녀) 5. 부모(배우자쪽 포함) 6. 형제자매, 기타가족 9. 기타 아는 사람

[그림 4] 2019 생활시간조사 조사표(안): 시간일지 내 ‘함께 한 사람’ 항목

④ 4. 함께 한 사람
 함께한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를 의미합니다. 단, 불특정다수인 군중 또는 모르는 사람은 제외)
 • 수면은 ‘혼자’로 기입하며, 함께한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모두 기입합니다.
 (예: 배우자 및 13살 자녀와 함께 식사를 한 경우 2와 4를 모두 기입)

[그림 5] 2019 생활시간조사 조사표(안): 시간일지 내 ‘함께 한 사람’ 항목 기입지침

2) 조사항목 변경사항

‘함께 한 사람’ 항목은 2009년 제3차 조사에서 시간일지 내의 독립적인 항목으로 처음 도입되었다.¹¹⁾ ‘함께 한 사람’은 ‘① 응답자와 서로 아는 사람으로, ②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③ 공간을 함께 하고, ④ 주된 행동을 같이 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조

10) ‘함께 한 사람’ 개념은 2018년 2차 시험조사에서 사용한 조작적 정의를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2018년 2차 시험조사 지침서를 참조하였다.

11) 1999년과 2004년 조사에서는 다른 사람과 같이 행동한 경우 누구와 함께 했는지를 ‘주로 한 행동’ 항목에 포함하여 기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파악하였다.

사개념은 2017년 1차 시험조사까지 유지되었다. 이후 2018년에서 실시한 인지면접을 통해 ‘함께 한 사람’을 규정하는 마지막 조건과 응답자의 일반적인 인식과의 괴리가 확인되었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조사개념¹²⁾과도 차이가 있었다. 조작적 정의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18년 2차 시험조사에서는 ‘④ 주된 행동을 같이 한 사람’이라는 마지막 조건¹³⁾을 삭제함으로써 ‘함께 한 사람’ 개념의 포괄범위가 확대되었고,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19년 조사표(안)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표 2>).

<표 2> 생활시간조사 ‘함께 한 사람’ 항목 변경사항

	2014년 제4차 조사	2017년 1차 시험조사	2018년 2차 시험조사	2019년 조사표(안)
항목명	함께 한 사람	주행동을 함께 한 사람	함께 한 사람	함께 한 사람
조작적 정의	① 응답자와 서로 아는 사람	좌동	① 응답자와 서로 아는 사람	좌동
	②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②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③ 공간을 함께 한 사람		③ 공간을 함께 한 사람	
	④ 주된 행동을 같이 한 사람		삭제	삭제
시간일지 내 기입지침	「1. 주로 한 행동」을 같이 한 사람	좌동	응답자와 서로 아는 사람으로서 공간을 함께 한 사람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를 의미

자료: 통계청, 2016; 2017; 2018.

12) 유럽통계청(Eurostat)에서 발표한 유럽통합생활시간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Harmonised European Time Use Surveys 2018 Guidelines」(2019))에서는 ‘함께 한 사람’을 ‘① 응답자와 서로 아는 사람으로서 ② 공간을 같이 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공간을 같이 한다’는 가까이(on hand)에 있었는지 존재 여부를 의미하므로 동일한 행동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함께 한 사람’ 지침 원문: “Were you alone or together with somebody you know?” For each 10-minute period, please tick one or more boxes to show if you were alone or together with somebody you know. To be together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you actually do things together but rather that somebody else is on hand (e.g. at home). If you are along with people you don't know, indicate "alone" as well. And you don't have to answer this question for sleeping time.)

13) 주행동을 누구와 같이 했는지 조사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면 ‘④ 주된 행동을 같이 한 사람’이라는 마지막 조건을 적용한 협소한 정의에 따른 조사가 적합하다.

2. 참가자

인지면접에는 총 26명이 참가했다. 전체 참가자 중 남성은 9명, 여성은 17명이었으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4명, 30대가 7명, 40대가 6명, 50대 이상이 9명이었다. 교육 정도는 고졸 이하가 10명, 대졸 이상이 16명이었는데, 고졸 이하는 대학교 재학생 3명, 휴학생 1명을 포함하여 집계하였다. 혼인 상태는 미혼이 6명, 배우자 있음이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혼인 경우(2명)는 미혼으로 집계하였다.

참가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통계청 등), 기타 인터넷 게시판, 생활정보신문에 공고하여 모집하였다. 모집공고에는 참가 자격(만 19세 이상 성인), 면접일정 및 방법, 사례비 지급, 참가 신청 방법 등을 명시하고, 참가신청서 양식을 첨부하였다. 참가신청서는 성,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 등 주요 인구학적 특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했으며, 성이나 연령 등이 고루 포함되도록 참가자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참가자 특성은 <표 3>과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인지면접 참가자 구성

(단위: 명)

전체	성		연령대(만)				교육정도		혼인상태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고졸 이하 ¹⁾	대졸 이상	미혼 ²⁾	유배우
26	9	17	4	7	6	9	10	16	6	20

주: 1) 대학교 재학생 3명, 휴학생 1명 포함. 2) 이혼 2명 포함.

<표 4> 인지면접 참가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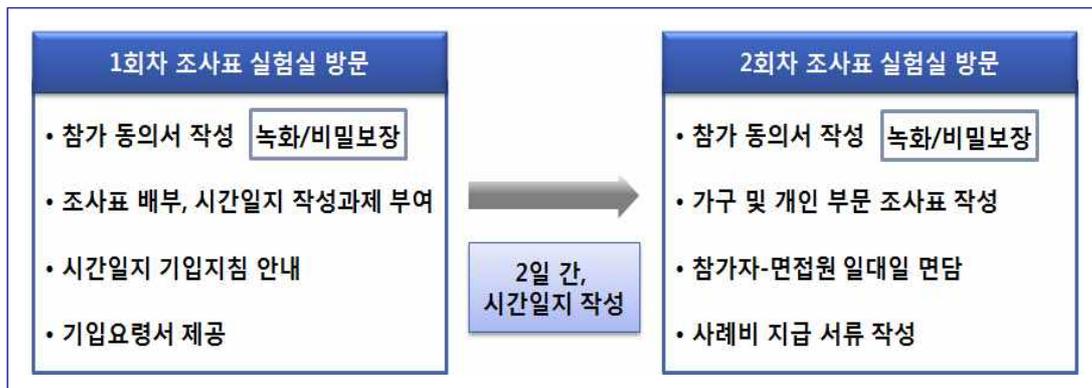
번호	성	연령(만)	교육정도	혼인상태
1	남	22	대학교(4년제 이상)	미혼
2	여	23	대학교(4년제 이상)	미혼
3	여	41	대학교(4년제 이상)	배우자 있음
4	여	50	대학(교)(4년제 미만)	배우자 있음
5	남	53	대학교(4년제 이상)	배우자 있음
6	여	50	대학교(4년제 이상)	이혼

번호	성	연령(만)	교육정도		혼인상태
7	여	64	초등학교	졸업	배우자 있음
8	여	41	고등학교	졸업	배우자 있음
9	남	37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배우자 있음
10	남	36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배우자 있음
11	여	47	고등학교	졸업	이혼
12	여	38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배우자 있음
13	여	37	대학(교)(4년제 미만)	졸업	배우자 있음
14	여	65	대학(교)(4년제 미만)	중퇴	배우자 있음
15	여	36	대학(교)(4년제 미만)	졸업	배우자 있음
16	남	43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배우자 있음
17	남	33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배우자 있음
18	남	26	대학교(4년제 이상)	재학	미혼
19	여	48	고등학교	졸업	배우자 있음
20	여	22	대학교(4년제 이상)	재학	미혼
21	남	52	대학(교)(4년제 미만)	졸업	배우자 있음
22	여	42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배우자 있음
23	남	54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배우자 있음
24	여	60	고등학교	졸업	배우자 있음
25	여	39	대학(교)(4년제 미만)	졸업	배우자 있음
26	여	50	대학(교)(4년제 미만)	졸업	배우자 있음

3. 수행과정

인지면접은 2019년 2월 11일부터 3월 8일까지 통계개발원 내 조사표실험실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참가자가 실험실을 두 차례 방문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그림 6]). 1회차에서는 참가자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진행자는 참가자에게 연구목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참가 동의서’¹⁴⁾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생활시간조사 조사표를 배부하고 조사표 구성과 시간일지(부가항목 포함) 조사내용을 설명하면서 2회차 실험실 방문 시 시간일지를 작성해오는 과제를 부여하였다. 이때 참가자가 조사표 내부에 제시된 시간일지 기입지침을 읽어보고 궁금한 사항은 진행자에게 질문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제 조사 시행과 동일하게 별도의 ‘기입요령서’를 제공하여 시간일지 작성방법과 다양한 작성예시를 안내하였다.

참가자는 1회차 방문 후 집에서 2일간 시간일지를 작성하고, 예정된 날짜에 조사표 실험실을 다시 방문하였다. 2회차 방문에서는 1회차와 동일한 내용의 ‘참가 동의서’에 서명한 후, 전체 조사표 중 집에서 작성해 온 시간일지 부문(부가항목 포함)을 제외한 가구 및 개인 관련 사항을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¹⁵⁾ 조사표 작성 완료 후 면접원이 사전에 마련한 프로빙 지침을 토대로 필요한 탐색질문을 추가하는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응답과정을 상세히 묻고 참가자의 답변내용을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참가자에게 사례비 지급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요청하였다. 인지면접 수행과정은 참가자의 사전 동의하에 실험실 기기를 활용하여 녹화(녹취 포함)되었다.



[그림 6] 인지면접 수행과정

14) 참가 동의서는 인지면접 진행과정이 녹화되고 제공된 정보는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진행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나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5) ‘감정 상태’ 항목의 추가안 검토가 결정된 이후 참가자들은 가구 및 개인 관련 사항에 관한 응답을 완료하면 이어서 조사표와 별도의 용지에 인쇄된 추가안을 작성하도록 사전에 안내하였다.

4. 프로빙 지침

프로빙 지침은 인지적인 쟁점이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 참가자 간 공통된 질문으로 응답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질문 목록이다. 인지면접에서 사용한 프로빙 지침의 세부적인 내용이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지침은 변경 항목 검토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간일지의 ‘함께 한 사람’과 ‘감정 상태’ 항목의 응답내용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구성되어 있다.

<표 5> 인지면접 프로빙 지침

부문	조사항목	프로빙 내용
도입	-	응답 어려웠던 항목 및 이유
가구 관련 사항	1. 함께 사는 가구원 (만 10세 이상)	가구 구성원 및 타가구원 포함 여부 (「6. 기타 돌봄 필요」 응답자) 필요한 돌봄 내용, ‘기타 돌봄 필요’ 선택 이유 및 이해 상태
	3. 함께 살지 않는 가족	(미응답자) 다른 곳에 사는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누락 여부 (응답자) 같은 곳에 사는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포함 여부
개인 관련 사항	7. 교육정도	현재 재학상태 기준 응답 여부
	9-1. 일자리의 분류	응답 이유 지침 활용 여부
시간 일지 ¹⁾	4. 함께 한 사람	함께 한 사람 응답내용과 실제 상황 비교 및 응답기준 - 행동 당시 상황 - 행동 당시 주위에 응답내용 외 다른 사람 존재 여부 - (타인 존재 시,) 당시 타인의 행동 해당 타인을 응답내용에서 제외한 이유 (「9. 기타 아는 사람」 응답자) 응답자와 「9. 기타 아는 사람」 대상자 간 관계 (불특정 다수, 모르는 사람 제외 여부)
시간 일지 부가 항목	1.5. 감정 상태	원 안 (전체) 전체적인 기분 응답과정 (행동분류별) - (「해당 없음」 외 응답자) 행동분류별 기분 응답과정 (기분 응답에 근거한 행동 : 내용 및 발생 시점 등) <주요 행동 중 응답과정에 미보고 된 행동> 대상 행동분

부문	조사항목		프로빙 내용
			류 요청 및 미보고 이유 - (「해당 없음」 응답자) 응답 이유 해당 행동분류 행동 발생 여부 재확인 참고사항 활용 여부 및 보완 필요사항
		추가안	원안과 비교 시, 응답 어려움 여부 응답과정 응답내용과 시간일지 기입내용(행동, 시간 등) 비교 응답내용과 시간일지 기입내용 차이 발생 및 이유 확인 무응답 여부 및 이유
	4.8. 방문자		방문자 응답내용과 시간일지 기입내용 비교
기타	시간일지 내 기입지침		기입지침 활용 여부 및 보완 필요사항
	기입요령서		기입요령서 활용 여부 및 보완 필요사항
	시간활용 만족도 ²⁾		기존 ‘시간활용 만족도’ 응답 요청 전체적인 기분 응답내용과 차이 발생 이유
마무리	-		추가하고 싶은 의견 생활시간조사 응답 경험 인지면접 참가 경로

주: 1) 함께 한 사람 외의 주행동, 동시행동, ICT 기기, 행위장소 또는 이동수단 정보는 함께 한 사람 응답 내용을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파악하였다.

2) ‘시간활용 만족도’ 항목은 2019 생활시간조사 조사표(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조사항목으로 2018년 2차 시험조사 항목을 사용하였다.

제3장 연구결과

1. 감정 상태

가. 원안

2019년 조사표(안)에 수록된 ‘감정 상태’ 항목 원안은 시간일지 작성일 전체와 제시된 8가지 행동에 관한 기분을 7점 척도로 조사한다([그림 7]). 인지면접에서는 참가자가 기분을 응답하는데 근거한 행동을 파악하고, 시간일지에 기입한 행동 중 ‘감정 상태’ 항목 응답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행동을 확인하는 등 응답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원안에 관한 세 가지 응답특성을 중심으로 검토 결과를 정리하였다.

1 귀하는 시간일지를 작성한 첫째 날 아래의 각 사항에 대하여 기분이 어떠하였습니까?

	매우 좋음	상당히 좋음	약간 좋음	보통	약간 나쁨	상당히 나쁨	매우 나쁨	해당 없음
① 일(수입을 위한 일)	<input type="checkbox"/>							
② 학습	<input type="checkbox"/>							
③ 가정관리(음식준비, 청소 등)	<input type="checkbox"/>							
④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input type="checkbox"/>							
⑤ 자원봉사	<input type="checkbox"/>							
⑥ 교제 및 참여활동	<input type="checkbox"/>							
⑦ 문화 및 여가활동	<input type="checkbox"/>							
⑧ 이동	<input type="checkbox"/>							
전체적인 기분	<input type="checkbox"/>							

* 시간일지를 작성한 첫째 날에 하지 않은 행동의 경우 ‘해당없음’에 표시합니다.

참고

- ③ 가정관리 : 가족 또는 가구의 가정생활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행동 (남의 집 가사 일을 돕는 행동은 포함하지 않음)
*(예) 음식준비, 세탁 및 다림질, 청소, 주거관리, 반려동물 돌보기, 쇼핑하기 등
- ④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 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및 형제자매) 또는 가구원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살피는 행동
*(예) 자녀 책 읽어주기, 자녀와 놀아주기, 부모님 간호하기 등
- ⑥ 교제 및 참여활동 : 사교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는 행동 및 국가, 사회일에 의무 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
*(예) 이웃과 대화, 친구와 전화로 잡담하기, 예비군 훈련, 조사표 작성, 녹색 어머니, 집회 참여 등
- ⑧ 이동 :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움직이는 행동 (건물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이동에 포함하지 않음)

[그림 7] 2019 생활시간조사 조사표(안): ‘감정 상태’ 조사항목 원안

1) 응답특성

가) 행동분류 혼동

‘감정 상태’ 항목 원안에 대한 인지면접 참가자의 응답과정을 검토한 결과, 다른 범주의 행동을 근거로 기분을 응답하는 행동분류 혼동 현상이 첫 번째 응답특성으로 나타났다. 행동분류를 혼동한 사례는 참가자 전반에 걸쳐 확인할 수 있으며, <표 6>과 같이 정리되었다.

‘가정관리’와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그리고 ‘교제 및 참여활동’ 간 행동분류를 혼동한 사례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가정관리’에 관한 응답에 포함된 자녀와 배우자 돌보기는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참가자 4, 8), 가족과 함께 한 자녀 생일파티와 교회에서 신도들과 식사를 준비한 행위는 ‘교제 및 참여활동’에 해당한다(참가자 16). 또한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응답 시 고려한 우편업무, 고양이 돌보기, 자녀나 배우자 식사준비는 ‘가정관리’에 해당하고(참가자 4, 5, 9, 18, 24, 25), 교회에서 신도들과 식사준비나 가족과 대화 등은 ‘교제 및 참여활동’으로 분류해야 한다(참가자 16, 17, 19).

한편 ‘일’에 관한 행동분류에서도 혼동이 관찰되었는데, ‘학습’ 범주 응답 시 고려한 인터넷으로 업무 관련 정보를 검색하거나 신규 업무 습득 등(참가자 5, 6, 10, 13, 25)과 ‘교제 및 참여활동’의 업무와 연관된 사람과의 만남(참가자 6, 26), 그리고 ‘이동’의 대리운전(참가자 9) 등은 행동분류가 ‘일’로 정정되어야 한다. 이 밖에 ‘문화 및 여가활동’으로 응답한 교회 예배나 친구와의 대화는 ‘교제 및 참여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참가자 11, 13, 14, 15, 20).

<표 6> ‘감정 상태’ 원안 응답특성 1: 행동분류 혼동 사례

	참가자	기분 응답에 포함한 행동	행동분류 정정
일	13	가사	가정관리
학습	5, 6	인터넷으로 업무 관련 정보검색	일
	10	교사의 신학기 준비 업무(책 읽기 등)	
	13	인지면접용 생활시간조사표 시간일지 작성	
	25	신규 업무 습득	
	14	교양 목적 책 읽기	문화 및 여가활동
가정관리	4	성인 자녀 일정 챙기기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8	만 10세 미만 자녀 돌보기, 배우자 돌보기	
	16	가족들과 만 10세 미만 자녀 생일파티하기, 교회에서 신도들과 식사준비	교제 및 참여활동

	참가자	기분 응답에 포함한 행동	행동분류 정정
	17	배우자와 즐겁게 식사하기	개인유지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9	우편업무	가정관리
	18	고양이 돌보기	
	4	성인 자녀 식사준비	
	24, 25	배우자 식사준비	
	5	배우자와 함께 식사준비	문화 및 여가활동
		배우자와 함께 운동	
	16	교회에서 신도들과 식사준비	교제 및 참여활동
	17	배우자 가족과 시간 보내기	
19	가족과 대화		
자원 봉사	10, 13	가족(만 10세 미만 자녀 포함) 돌보기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14	부동산 사장이 중개료 받지 않고 무보수로 한 일	일
교제 및 참여 활동	6, 26	업무 관련 사람 만남	일
	13	조사표 인지면접 참가	
문화 및 여가 활동	18	고양이 돌보기	가정관리
	3	만 10세 미만 자녀 학교 발표회 관람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15	교회 예배	교제 및 참여활동
	11, 13, 14, 20	친구와 만나서 대화 등 시간 보내기	
이동	9	대리운전	일

나) 행동 누락

‘감정 상태’ 항목 원안에 대한 두 번째 응답특성으로 시간일지 작성 일에 특정 분류의 행동을 했음에도 해당 범주에 대한 기분을 응답할 때 그 행동을 고려하지 않는 누락이 나타났다. 이러한 행동 누락은 ‘교제 및 참여활동’과 ‘문화 및 여가활동’ 범주에 관한 응답과정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인지면접 참가자 26명 중 ‘교제 및 참여활동’과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해당 없음」 응답자는 각각 11명, 10명이었는데,¹⁶⁾ 프로빙 결과 각 범주의 행동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누락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었다.¹⁷⁾ 해당 참가자들은 응답 시 대체로 일상적인 행동을 누락했으며, ‘교제 및 참여활동’에서는

16) 「해당 없음」 응답자

- ‘교제 및 참여활동’(11/26명): 참가자 5, 6, 7, 8, 9, 11, 14, 18, 21, 23, 25
- ‘문화 및 여가활동’(10/26명): 참가자 3, 7, 8, 9, 11, 14, 23, 24, 25, 26

17) ‘일’, ‘학습’, ‘자원봉사’ 등에서도 「해당 없음」 응답자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프로빙 결과 실제로 각 범주에 관련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과 대화, 전화통화, 종교 활동 등을, ‘문화 및 여가활동’에서는 TV 시청, 음악듣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7>).¹⁸⁾

<표 7> ‘감정 상태’ 원안 응답특성 2: 행동 누락 주요 사례

	행동 누락 주요 사례
교제 및 참여활동	(교 제) [대상 측면]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과 대화 [방식 측면] 전화,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 대화 (참여활동) 교회 예배, 종교적 기도, 장례식 조문, 제사 지내기 등
문화 및 여가활동	TV 시청, 유튜브 시청, 라디오듣기, 음악듣기 / 신문보기 / 산책

다) 질문 이해 부족

마지막 응답특성으로 시간일지 작성 일에 한 행동에 한정해서 그에 관한 기분을 묻는 ‘감정 상태’ 항목 원안의 질문 의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해당 참가자들이 질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응답했는지 검토한 결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첫째, 시간일지 작성 일에 하지 못한 행동을 생각하고 그에 따라 유발된 기분을 응답하였다(참가자 6, 10). 청소를 못해 집 안이 엉망이어서 「보통」(참가자 6), 교제 및 참여활동과 문화 및 여가활동을 희망하나 못한 것이 불만이어서 「약간 나쁨」(참가자 10)을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 6: ‘가정관리’ 「보통」 응답)

참가자- 별로 못해서요. 가정관리를... 청소를 못해가지고 보통이라고 했어요.

(참가자 10: ‘교제 및 참여활동’, ‘문화 및 여가활동’ 「약간 나쁨」 응답)

참가자- 교제 및 참여활동은 이것도 해당이 없는 거 같아요. 저는 못해서 그 기분을 적은 건데, 첫날은 친구 만난 거 그 정도 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점심 먹으면서...

면접원- 선생님이 나쁜 쪽으로 응답하신 거는 어떤 행동에 대한 기분이 아니라 그 행동을 좀 더 원하는 데 시간이 없어 못해서 그런 거 생각해 주신 거고요. (중략) 7번은 어떻게 생각해 주신 건가요?

참가자- 이것도 못해가지고 불만인 거죠.

18) 한편 ‘교제 및 참여활동’과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해당 없음」 응답자 외에도 다수는 해당 분류에 대한 기분을 응답할 때 행동 중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간일지 작성 일에 해당 범주에 관한 행동이 요구되지 않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긍정 또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분을 평가하지 않고 중립적인 상태인 「보통」을 선택하였다(참가자 14, 17).

(참가자 14: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보통」 응답)

참가자- 그냥 특별한 거 없었어요.

(참가자 17: ‘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보통」 응답)

참가자- 와이프가 없지만 집안 안 어지르고 그냥 유지만 하면 보통이라 생각했습니다.

면접원- 네. 그럼 가정관리에 해당되는 어떤 행동을 하신 건 아니시고요?

참가자- 네. 집안일을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면접원- 4번은 어떻게 생각해주신 건가요?

참가자- 이것도 그냥 별 다른 일이 없어서 보통으로 체크했어요.

이 밖에 셋째, 해당 범주에 관한 ‘평소’의 행동을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그에 대한 기분을 응답하거나(참가자 21, 23, 26), 넷째, 미래에 대한 기대 또는 계획 구상에 따른 기분을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가자 22, 24).

2) 참고사항 활용 현황

‘감정 상태’ 항목 원안의 하단에는 혼동이 우려되는 4개 행동분류(‘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교제 및 참여활동’, ‘이동’)에 관한 설명과 예시가 참고사항으로 제시되어 있다([그림 8]). 인지면접에서는 참가자들이 이러한 참고사항을 응답에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검토하였다.

전체 참가자(26명) 중 절반인 13명¹⁹⁾이 응답 중 참고사항을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참조자의 응답과정에서도 앞서 살펴본 행동분류 혼동과 행동 누락 문제가 전반적으로 도출되어, 참고사항 제시 방법은 상기된 문제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²⁰⁾ 다만 참고사항이 응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도 일부 존재하였다. ‘교제 및 참여활동’에 가족과 대화(참가자 15)와 전화 등 비대면 대화(참가자 3, 15)가 포함됨을 인식하게 되

19) 참가자 1, 2, 3, 6, 9, 12, 13, 14, 15, 20, 22, 23, 24

20) 한 참가자는 참고사항 내용이 시간일지 내의 ‘행위장소 또는 이동수단’ 항목 응답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참가자는 부모 집을 「남의 집」으로 응답하기 어색하다고 언급했는데, ‘감정 상태’ 원안의 참고사항에 ‘가정관리’는 남의 집 가사 일을 돕는 행동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과 부모 집에서 한 음식 준비는 ‘가정관리’ 행동에 해당한다는 본인 생각이 배치되었기 때문이다(참가자 22).

었다. 그리고 ‘가정관리’와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를 구분하고(참가자 2, 12),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에 아이 이외 가구원 간호하기 등이 포함됨을 알게 되었다(참가자 20).

1 귀하는 시간일지를 작성한 첫째 날 아래의 각 사항에 대하여 기분이 어떠하였습니까?

	매우 좋음	상당히 좋음	약간 좋음	보통	약간 나쁨	상당히 나쁨	매우 나쁨	해당 없음
① 일(수입을 위한 일)	<input type="checkbox"/>							
② 학습	<input type="checkbox"/>							
③ 가정관리(음식준비, 청소 등)	<input type="checkbox"/>							
④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input type="checkbox"/>							
⑤ 자원봉사	<input type="checkbox"/>							
⑥ 교제 및 참여활동	<input type="checkbox"/>							
⑦ 문화 및 여가활동	<input type="checkbox"/>							
⑧ 이동	<input type="checkbox"/>							
전체적인 기분	<input type="checkbox"/>							

* 시간일지를 작성한 첫째 날에 하지 않은 행동의 경우 ‘해당없음’에 표시합니다.

참고

③ 가정관리 : 가족 또는 가구의 가정생활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행동 (남의 집 가사 일을 돕는 행동은 포함하지 않음)
*(예) 음식준비, 세탁 및 다림질, 청소, 주거관리, 반려동물 돌보기, 쇼핑하기 등

④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 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및 형제자매) 또는 가구원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살피는 행동
*(예) 자녀 책 읽어주기, 자녀와 놀아주기, 부모님 간호하기 등

⑥ 교제 및 참여활동 : 사교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는 행동 및 국가, 사회일에 의무 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
*(예) 이웃과 대화, 친구와 전화로 잡담하기, 예비군 훈련, 조사표 작성, 녹색 어머니, 집회 참여 등

⑧ 이동 :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움직이는 행동 (건물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이동에 포함하지 않음)

[그림 8] 2019 생활시간조사 조사표(안): ‘감정 상태’ 조사항목 원안의 참고사항

3) 기타: ‘시간활용 만족도’와 비교²¹⁾

프로빙 과정에서 시간일지 작성 일에 대한 ‘시간활용 만족도’를 질문하여 ‘감정 상태’ 항목 원안의 전체적인 기분에 대한 조사결과와 비교했다. ‘시간활용 만족도’는 2014년 제4차 조사부터 2018년 2차 시험조사까지 지속적으로 조사되었으나 2019년 조사표(안)에 ‘감정 상태’가 시간일지 부가항목으로 도입되면서 삭제된 항목으로, 시간일지를 작성한 하루 동안 응답자의 시간활용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다([그림 9]).

‘시간활용 만족도’는 ‘감정 상태’ 원안의 전체적인 기분과 다른 차원으로 인식하여 응답 경향이 다른 사례가 발생하였다(5/17명)(참가자 12, 18, 20, 23, 25). 해당 참가자들은 ‘시간활용 만족도’는 시간일지 작성 일 하루를 계획대로 생활했는지(참가자 12, 18, 20, 25) 또는

21) ‘시간활용 만족도’ 질문은 10번 참가자부터 추가되어 전체 참가자(26명) 중 17명의 응답내용과 프로빙 결과를 검토하였다.

1 귀하는 시간일지를 작성한 첫째 날 시간 활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약간 만족 3 보통 4 약간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그림 9] 2018년 2차 시험조사 조사표: ‘시간활용 만족도’ 조사항목

경제활동에 따른 수입이 충분했는지(참가자 23)를 고려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감정 상태’ 원안의 전체 기분과 ‘시간활용 만족도’ 간 응답 차이 사례
 첫째 날 원안) 상당히 좋음 ↔ 시간활용 만족도) 약간 불만족(참가자 20)
 → (만족도 응답 이유) 자격증 시험공부를 계획대로 하지 않아 새벽에 함
 첫째 날 원안) 보 통 ↔ 시간활용 만족도) 약간 만 족(참가자 23)
 → (만족도 응답 이유) 일이 많고 바쁘면 몸은 힘들지만 수입이 많음

나. 추가안

‘감정 상태’ 항목 추가안은 시간일지 부가 질문임은 동일하나 원안과 다른 새로운 형태로 구성되었다. 추가안은 시간일지 작성 일의 전체 기분을 7점 척도로 질문한 후, 기분이 가장 좋았던 행동과 기분이 가장 좋지 않았던 행동 그리고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던 행동의 내용과 해당 행동의 시작과 종료 시간을 직접 기입하고 감정 정도를 3점

1 귀하는 시간일지를 작성한 첫째 날 전체적으로 기분이 어떠하였습니까?

1 매우 좋음 2 상당히 좋음 3 약간 좋음 4 보통 5 약간 나쁨 6 상당히 나쁨 7 매우 나쁨

1-1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기분이 가장 좋았습니까? *연번 행동분류

● 행동 : _____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 기분이 좋은 정도 : 1 매우 좋음 2 상당히 좋음 3 약간 좋음

1-2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기분이 가장 좋지 않았습니까? *연번 행동분류

● 행동 : _____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 기분이 좋지 않은 정도 : 1 매우 나쁨 2 상당히 나쁨 3 약간 나쁨

1-3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까? *연번 행동분류

● 행동 : _____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 스트레스를 받은 정도 : 1 매우 많이 받음 2 상당히 받음 3 약간 받음

[그림 10] 2019 생활시간조사 조사표(안): ‘감정 상태’ 조사항목 추가안

척도로 선택하도록 한다([그림 10]). 추가안은 인지면접 진행 중 마련하여 검토가 결정됨에 따라 10번 참가자부터 적용되어 참가자 17명의 응답반응을 탐색하였다.

1) 원안과 전반적인 비교

추가안 응답자에게 원안과 비교하여 응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등을 프로빙하였다. 추가안 응답자(16명²²⁾ 중 10명은 폐쇄형 질문 방식의 원안과 비교해 개방형 구조의 추가안에 대한 응답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 일부는 추가안 질문 구성이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다(참가자 10, 18, 20).

(참가자 10)

참가자- 이 게 더 나은 거 같아요. 직접 쓰는 게. 왜냐하면 너무 멍뚱그러가지고 하니까 힘든 점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하나 고르면 되니까.

(참가자 18)

참가자- 주관식 질문이 개인적으로 질문 자체를 평가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객관식에서 물어보지 못하는 그런 공백의 그런 질문들을 주관식에서 보충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참가자 20)

참가자- 저는 이게 조금 더 나왔던 거 같아요. 직접 쓰는 게. 이거는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략) 그냥 생각이 약간 자세하게는 못 쓰겠다는... 전체적인 기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세하게 쓸 수 있는 건 이거니까 저한테는 이게 더 좋았던 거 같아요.

반면 추가안 응답자(16명) 중 6명은 원안에 비해 응답을 어려워 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가자 12, 16, 17, 19, 22, 23). 추가안 응답이 어려운 이유는 행동이 발생한 특정 시간을 적기 애매하거나(참가자 12, 22, 23),²³⁾ 부정적인 감정 상태가 발생한 행동 내용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는 질문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한 것(참가자 16) 등이 언급되었다.

2) 응답특성

‘감정 상태’ 항목 추가안에 대한 인지면접 참가자의 응답과정을 검토한 결과 원안과

22) ‘감정 상태’ 원안과 추가안 응답에 관한 전반적인 비교는 해당 프로빙이 누락된 한 명(참가자 14)을 제외한 16명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23) 해당 참가자들이 행동이 발생한 특정 시간 기입의 애매함을 이유로 응답 어려움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이후 추가안 응답내용 및 특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

는 다른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안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 도출된 문제를 중심으로 응답특성을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대표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²⁴⁾

가) 행동 문구 또는 시간과 시간일지 기입내용 간 차이

추가안에 기입한 행동 문구 또는 시간과 해당 행동에 관해 시간일지에 기입한 내용과의 차이가 첫 번째 응답특성으로 나타났다(13²⁵⁾/17명, 참가자 10, +11, 12, 13, 14, 15, 17, 19, 20, 22, 24, 25, 26). 이러한 응답특성은 참가자 다수의 응답결과에서 확인되었으며, 개방형 질문에 응답내용을 직접 기입해야 하는 추가안의 구조에서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8>에서 행동 문구와 시간 기입 차이 각각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한 참가자는 기분이 가장 좋았던 행동을 「여가활동」이라 하였는데, 해당 시간의 시간일지에서는 동일한 행동을 「수영」이라는 다른 문구로 기입하였다(참가자 22). 다른 경우 추가안과 시간일지에 기입한 행동은 「유튜브 시청」으로 동일하나, 행동의 시작과 종료시간이 서로 차이가 발생하였다(참가자 26).

<표 8> '감정 상태' 추가안 응답특성 1: 해당 참가자 및 대표 사례

참가자	대표 사례
12/17명 (10, 11, 12, 13, 14, 15, 17, 19, 20, 24, 25, 26)	(참가자 22) 여가활동 / 06시 00분부터 07시 00분까지 → (시간 일지) 수영 / 06시 00분부터 07시 00분까지
	(참가자 26) 유튜브 시청 / 21시 00분부터 23시 00분까지 → (시간 일지) 유튜브 시청 / 21시 10분부터 23시 30분까지

나) 두 개 이상의 순차적 행동을 총괄한 행동과 시간 기입

두 번째 응답특성은 시간일지에 적은 두 개 이상의 순차적인 행동을 총괄한 행동과 시간을 응답한 것으로, 따라서 행동은 시간일지에 기입하지 않은 새로운 문구로 기입한 것으로 나타났다(6/17명, 참가자 12, 15, 17, 24, 25, 26).

<표 9>의 사례를 살펴보면, 한 참가자는 기분이 가장 좋지 않았던 행동과 시간을 「집으로 귀가해서 정리할 때」와 「밤 10시 00분부터 10시 30분까지」로 기입하였는데, 해당 시간의 시간일지 내용을 확인한 결과 「집으로 귀가」, 「아이들 씻기고 잘 준비」, 「옷 정리」와 같은 순차적인 한 개 이상의 행동을 총괄한 행동과 시간으로 파악되었다(참가자

24) 추가안에 응답한 참가자별 전체 응답내용과 해당 특성은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다.

25) 추가안에서 첫째 날과 둘째 날 각각 세 가지 감정 상태(기분이 가장 좋은, 좋지 않은 그리고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은 행동)에 관한 총 6개 질문의 응답내용 중 한 개 이상 해당 응답특성이 발생한 참가자를 의미한다. 다음에 살펴볼 각 응답특성이 발생한 참가자 수도 동일한 방식으로 집계하였다.

15). 다른 한 참가자는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던 행동과 시간을 「아이들 등원, 출근」, 「7시 25분부터 8시 50분까지」로 기입했으나, 이러한 행동과 시간은 「아침식사 차리기」부터 「직장으로 이동」까지 일련의 6개 행동의 집합으로 나타났다(참가자 25).

〈표 9〉 ‘감정 상태’ 추가안 응답특성 2: 해당 참가자 및 대표 사례

참가자	대표 사례
6/17명 (12, 15, 17, 24, 25, 26)	(참가자 15) 집으로 귀가해서 정리할 때 / 밤 10시 00분부터 10시 30분까지 → ‘집으로 귀가’ / ‘아이들 씻기고 잘 준비’ / ‘옷 정리’ 총괄 행동/시간 (참가자 25) 아이들 등원, 출근 / 7시 25분부터 8시 50분까지 → ‘아침식사 차리기’ / ‘첫째 아이 학교 챙기기’ / ‘집 청소기 돌리기’ / ‘작은 아이 씻기고 옷 입히기’ / ‘일 갈 준비’ / ‘직장으로 이동’ 총괄 행동/시간

다) 한 개 행동 시간 중 일부 시간 기입

세 번째 응답특성은 시간일지에 표시된 한 개 행동의 전체 시간 중 일부 시간을 기입한 것이었다(4/17명, 참가자 12, 14, 17, 26). 이때 추가안의 행동 문구는 시간일지의 기입내용과 동일하거나, 추가안에 응답한 시간 동안의 세부적인 행동이나 상황을 새로운 문구로 기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는 기분이 가장 좋지 않았던 행동과 시간을 「업무 시」와 「2시 00분부터 2시 10분까지」로 기입한 것으로, 이는 시간일지에서 1시 40분부터 5시 50분까지 해당하는 「업무 시작」 행동의 일부를 의미한다(참가자 12),²⁶⁾ 후자의 사례는 기분이 가장 좋았던 행동과 시간에 관한 질문에 시간일지의 8시 10분부터 12시 00분까지 「출근 및 업무시작」 행동의 일부 시간인 「10시 20분부터 11시 50분까지」와 이 시간에 대한 세부적인 상황을 「업무 스트레스(상사)」라는 새로운 문구로 응답한 것이다(〈표 10〉).

〈표 10〉 ‘감정 상태’ 추가안 응답특성 유형 3: 해당 참가자 및 대표 사례

참가자	대표 사례
4/17명 (12, 14, 17, 26)	(참가자 12) 업무 시 / 2시 00분부터 2시 10분까지 → 업무 시작 / 1시 40분부터 5시 50분까지 중 일부 시간 (참가자 17) 업무 스트레스(상사) / 10시 20분부터 11시 50분 → 출근 및 업무시작, 8시 10분부터 12시 00분까지 중 일부 시간

26) 이 사례에서 추가안과 시간일지 각 행동 문구는 「업무 시」와 「업무 시작」으로 사소한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한편 해당 참가자는 한 행동(「업무 시작」) 중 기분이 좋지 않았던 일부 시간을 세밀하게 기억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원안과 비교해 추가안 응답이 어렵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신규 행동 기입

시간일지에 제시되지 않은 신규 행동을 기입한 것이 네 번째 응답특성이었다(5/17명, 참가자 11, 14, 21, 22, 25). 한 참가자는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던 행동과 시간을 「손님이 거짓말 할 때」, 「14시 00분부터」로 적었는데, 시간일지에는 14시 00분부터 15시 00분까지 「교차로 보기」만 표시되어 있다(참가자 14). 프로빙 결과 14시부터 10분 정도 손님과 전화통화하면서 발생한 상황을 시간일지에서 누락함으로써 추가안에서 신규 행동으로 등장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사례를 보면 기분이 가장 좋았던 행동(「큰 애와 대화할 때」)이 발생한 시간(27)이 시간일지에는 「큰 애 하교(점심 차리기)」로 되어 있다(참가자 11), 이 경우 추가안 응답내용은 해당 시간 동안 시간일지에 기재된 주행동의 동시행동으로 나타나 전 사례와 구분되었다(<표 11>).

<표 11> ‘감정 상태’ 추가안 응답특성 유형 4: 해당 참가자 및 대표 사례

참가자	대표 사례
5/17명 (11, 14, 21, 22, 25)	(참가자 14) 손님이 거짓말 할 때 / 14시 00분부터 → (시간 일지) 교차로 보기 / 14시 00분부터 15시 00분까지 중 신규 행동
	(참가자 11) 큰 애와 대화할 때 / (누락) → (시간 일지) 큰 애 하교(점심 차리기) / 12시 00분부터 12시 20분까지 중 신규 행동

마) ‘평소’ 기준 행동 또는 상황 기입

시간일지를 작성 일에 한정하지 않고 ‘평소’ 생활을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감정 상태를 경험하는 행동이나 상황을 기입한 것이 다섯 번째 응답특성으로 파악되었다(2/17명, 참가자 21, 23). 해당 참가자들은 행동란에 「산책」, 「일이 풀리지 않을 때」(참가자 21), 「납품이 순조롭게 이뤄질 때」, 「납품이 적어 배송이 원활하지 못할 때」(참가자 23)²⁸⁾ 등을 적었다.²⁹⁾

27) 이 사례에서는 행동 발생시간 응답이 누락되었으나, 프로빙을 통해 「큰 애와 대화할 때」 시간은 12시 00분부터 12시 10분까지였던 것을 확인하였다.

28) 해당 참가자는 ‘평소’ 기준으로 생각함에 따라 시간을 특정해서 적기 애매하고 그 결과 추가안 응답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이로 인해 기분이 가장 좋았던 행동은 「15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은 행동은 「12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와 같이 행동 발생 시간을 넓게 잡고, 그 결과 감정 상태별 시간이 중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 이러한 참가자들은 ‘감정 상태’ 원안에 대해서도 ‘평소’ 생각을 응답하는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다.

(참가자 21)

면접원- 1-3번은 일이 풀리지 않을 때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이거는 토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행동이셨나요?

참가자 - 토요일 그때 하루를 생각한 게 아니라 전에 제가 살아오면서를 생각한 거라니까요.

(중략)

면접원 - 산책 같은 경우는 둘째 날에 따로 외출한 게 없다고 하신 거 같은데요...

참가자 - 저는 보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를 적은 거구요. (중략) 산책할 때가 기분이 좋아 가지고 한 거거든요.

면접원 - 꼭 일요일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시고요?

참가자 - 네.

(참가자 23)

면접원- 그럼 1-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어주신 건가요?

참가자- 이거는 물건을 적게 들어오면 장사가 원활하지 않고 수입이 적어지면 우울해지죠. 수입이 적어지니까 갈등도 생기고, 폐업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개념으로 적은 겁니다.

면접원- 여기 12시부터 18시까지로 적어 주셨는데요?

참가자- 이때부터 보통 본격적으로 일을 하거든요, 오전에는 학교 급식이고, 석식이 없을 때도 있어요. 없을 때는 바로 제 일을, 주업을 하는 거죠.

면접원- 그럼 선생님께서 12시부터 18시나 15시부터 18시로 적어주신 거는 꼭 월요일에 한정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주로 주업하시는 시간에서 납품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기분이 좋으신 거고, 납품이 적어서 배송이 원활하지 않으면 기분이 안 좋으신 거고요?

참가자- 네, 그 개념입니다. 시간도 일이 바쁠 땐 20시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저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요. 직장인들은 6시 퇴근이잖아요?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적은 겁니다.

바) 무응답

여섯 번째 응답특성은 무응답으로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각 감정 상태 별 세부 항목인 행동, 시간, 정도 중 일부 항목 응답을 누락한 것이다(10/17명, 참가자 11, 12, 13, 14, 16, 21, 22, 24, 25, 26). 이 중 시간을 누락한 경우(6/10명)는 행동 시작만 기입하거나(참가자 14, 24) 시간일지 작성일 중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참가자 22)³⁰⁾ 또는 ‘평소’ 행동(참가자

30) 해당 참가자는 기분이 가장 좋지 않았던 행동은 「아이가 울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던 행동은

21)이어서 시간을 특정하지 못한 사례를 포함한다. 다른 하나는 네 가지 질문 문1-2/5-2(기분이 가장 좋지 않은 행동)와 문1-3/5-3(스트레스 가장 많은 받은 행동) 중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면 세부 항목인 행동, 시간, 정도 모두 무응답한 것이다(7/17명, 참가자 11, 12, 13, 16, 21, 24, 25). 반면 문1-1/5-1의 기분이 가장 좋은 행동에 관한 질문은 무응답이 발생하지 않았다.

사) 문1-2/5-2와 문1-3/5-3 응답내용 동일

마지막으로 문1-2/5-2(기분이 가장 좋지 않은 행동)와 문1-3/5-3(스트레스 가장 많이 받은 행동)에 관한 각 질문에 대해 동일한 행동과 시간을 응답한 사례가 발생하였다(6/17명, 참가자 12, 15, 17, 18, 23, 26). 이때 동일한 의미의 행동을 문1-2/5-2와 문1-3/5-3에서 문구를 다르게 기입한 사례를 포함한다(참가자 15, 17, 23, 26). 한 참가자는 문1-2에서는 「부동산 방문」이라 적고, 동일한 시간의 같은 행동을 문1-3에서는 「영업」으로 표현하였다(참가자 26).

2. 함께 한 사람

2019년 조사표(안)에서 ‘함께 한 사람’ 항목은 시간일지 내에 ‘주로 한 행동’, ‘동시에 한 행동’ 등 다른 항목과 함께 10분 단위로 모든 행동에 대해 조사한다([그림 11]). ‘함께 한 사람’은 ‘① 응답자와 서로 아는 사람으로서, ②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③ 공간을 함께 한 사람’으로 정의한다(통계청, 2018). 2018년 2차 시험조사 부터 주행동을 같이 한 사람 조건이 삭제되고 ‘함께 한 사람’ 개념이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으로 확대된 것과 관련하여, 인지면접 참가자의 응답내용과 행동 당시 상황을 비교해 어떤 기준으로 응답했는지 검토하였다.

새벽 0시 10	1. 주로 한 행동	ICT기기	2. 동시에 한 행동	ICT기기	3. 행위장소 또는 이동수단	4. 함께 한 사람
	10분 동안 주로 한 행동을 기입합니다.	1. 스마트폰, 태블릿 2. PC, 노트북	주로 한 행동 외에 다른 행동을 동시에 한 경우 기입합니다.	1. 스마트폰, 태블릿 2. PC, 노트북	1. 본인 집 7. 도보 2. 직장 8. 버스 3. 학교 9. 지하철·철도 4. 남의 집 10. 택시 5. 기타(실내) 11. 승용차 6. 기타(실외) 12. 자전거 13. 기타교통	1. 혼자 2. 배우자 3. 만10세 미만(손자녀) 4. 만10세 이상(손자녀) 5. 부모(배우자쪽 포함) 6. 형제자매, 기타가족 9. 기타 아는 사람

[그림 11] 2019 생활시간조사 조사표(안): 시간일지 내 ‘함께 한 사람’ 항목

「아이들이 싸울 때」로 적고 시간은 누락하였다. 이와 같이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을 행동으로 하고 시간을 기입하고자 함으로 인해 추가한 응답이 어려운 것으로 귀결되었다.

가. 응답특성

1) 행동과 관련된 사람 응답

인지면접 참가자 전반적으로 본인의 행동과 관련된 사람을 '함께 한 사람'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14/19명³¹⁾(<표 12>). 기존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주행동을 같이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주행동의 상대방, 동시행동을 같이 한 사람, 동시행동의 상대방까지 함께 한 사람으로 포함한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었다. 이때 주행동의 상대방, 동시행동을 같이 한 사람, 동시행동의 상대방이 존재하는 행동은 주로 만 10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의 집 안에서 발생하였고, 주행동의 상대방이 존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 주행동의 상대방 포함 사례

주: 아이들 씻기기, 함께 한 사람: 10세 미만 자녀(참가자 13)

주: 큰 딸 깨우기, 함께 한 사람: 10세 이상 자녀(참가자 3)

주: 맞춤 운동, 함께 한 사람: 기타 아는 사람(참가자 26)

● 동시행동을 같이 한 사람 포함 사례

주: 커피 마시기, 동시: 아이들과 이야기, 함께 한 사람: 10세 미만 자녀(참가자 12)

주: 인터넷 검색, 동시: 남편과 대화, 함께 한 사람: 배우자(참가자 8)

● 동시행동의 상대방 포함 사례

주: 인터넷 자료검색, 동시: 아이와 놀아주기, 함께 한 사람: 10세 미만 자녀(참가자 9)

주: 집 정리하기, 동시: 아이들 돌보기, 함께 한 사람: 배우자, 10세 미만 자녀(참가자 10)

다만 참가자에 따라 조사개념 변경 전과 같이 주행동을 같이 한 사람만 함께 한 사람으로 응답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어 응답기준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참가자 3, 8, 9, 10, 11, 12, 13). 다시 말해 해당 참가자들은 시간일지를 작성한 2일간 함께 한 사람 응답기준이 조사개념이 확장되기 전과 후 중 하나로 일관되지 않은 경우이다. 이러한 참가자 중 일부는 대다수 행동에서는 조사개념 변경 후 기준으로 행동과 관련된 사람을 함께 한 사람에 포함하여 응답하였으나, 한두 가지 행동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가자 3, 10, 12).

31) 인지면접 전체 참가자(26명) 중 주행동을 같이 한 경우 이 외의 행동과 관련된 사람이 존재하는 상황이 시간일지에 표시된 19명을 대상으로 집계하였다. 같은 주행동 외 행동 관련 사람 응답자는 14명으로, 이는 행동 관련자를 누락한 한 명(참가자 19)과 시간일지 작성일 대부분 행동에 대해 집 안에 같이 있는 사람을 모두 표시한 4명(참가자 7, 15, 22, 25)을 제외한 결과이다. 이때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함께 한 사람으로 포함한 한 참가자는 집 밖에서 한 행동에 대해 행동 관련자를 응답한 사례가 있어 제외하지 않았다(참가자 23).

- 함께 한 사람 응답기준 혼재 사례

<시간일지 첫째 날> 주: 둘째 깨우기, 함께 한 사람: 혼자(참가자 11)

<시간일지 둘째 날> 주: 작은 애 깨우기, 함께 한 사람: 10세 이상 자녀(참가자 11)

2) 집 안에 같이 있는 사람 응답

한편 일부 참가자는 같은 공간을 집 안 전체로 보고 집 안에 같이 있는 사람을 모두 ‘함께 한 사람’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가자 7, 15, 22, 23, 25)(<표 12>).³²⁾³³⁾ 해당 참가자들은 시간일지 작성일 동안 집에서 발생한 행동에 대해 대상과 본인 행동과의 연관성은 물론 가까이에 있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집이라는 공간에 같이 있는 자녀, 배우자, 부모 등을 모두 표시하였다.

- 전체 행동 집 안에 같이 있는 사람 포함 사례

주: 설거지, 함께 한 사람: 배우자, 10세 미만 자녀(참가자 15)

→ 주방에서 혼자 설거지하는 동안 배우자는 거실, 자녀는 방에서 자고 있음

주: 둘째 재우기, 함께 한 사람: 배우자, 10세 미만 자녀(참가자 25)

→ 방에서 혼자 자녀 재우는 동안 배우자는 씻고 거실에서 TV 시청하고 있음

이 밖에 시간일지 전체 중 한두 가지 행동에서만 집 안에 같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함께 한 사람을 응답한 사례가 관찰되었다(참가자 3, 8, 10, 21).

- 일부 행동 집 안에 같이 있는 사람 포함 사례

주: 저녁식사 설거지, 정리하기, 함께 한 사람: 10세 미만, 10세 이상 자녀(참가자 3)

→ 10세 이상 첫째 자녀가 조금 도와주고, 둘째, 셋째 자녀들은 집 안에서 놀고 있음

주: 부모님과 대화하기, 함께 한 사람: 10세 미만 자녀, 부모(참가자 8)

→ 부모와 대화하는 동안 자녀는 옆에서 혼자 놀고 있음

32) 참가자 7, 22, 23은 시간일지 내 한두 가지 행동에서는 집 안에 있는 사람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3) 참가자 7은 10세 미만 손자녀는 집 안에 같이 있는 경우 대부분 포함한 반면, 배우자와 성인 자녀는 행동 관련 경우로 한정해서 응답하였다. 참고로 해당 참가자는 본인과 배우자는 1층, 손자녀를 포함한 자녀 가족은 2층에 거주하나, 손자녀는 주로 1층에서 본인과 배우자가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기입지침 활용 관련

‘함께 한 사람’에 대해 시간일지 도입부의 기입지침에는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를 의미한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또한 수면은 「혼자」로 기입하고, 함께 한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모두 기입하도록 안내한다([그림 12]). 이때 쉽표로 연결된 두 문장은 별개의 내용으로 앞부분은 수면은 무조건 혼자 한 것으로 기입하라는 의미이고, 뒷부분은 수면을 제외한 행동에 관한 것이다.

4. 함께 한 사람

- 함께한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를 의미합니다. 단, 불특정다수인 군중 또는 모르는 사람은 제외)
- 수면은 ‘혼자’로 기입하며, 함께한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모두 기입합니다.

(예: 배우자 및 13살 자녀와 함께 식사를 한 경우 2와 4를 모두 기입)

[그림 12] 2019 생활시간조사 조사표(안): 시간일지 내 ‘함께 한 사람’ 항목

인지면접 결과 이러한 기입지침에 대해 두 명의 참가자가 이해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하였다(참가자 3, 25)(<표 13>). 한 참가자는 첫 줄(“‘누구와 함께 있었느냐?’를 의미한다’)과 둘째 줄의 앞부분(‘수면은 「혼자」로 기입’) 내용이 모순된다고 언급하였다(참가자 3). 다른 한 참가자는 둘째 줄의 전체 문장(‘수면은 「혼자」로 기입하며, 함께 한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모두 기입합니다.’)을 이해하는 데 혼란스러움을 표현하였고, 최종적으로 주위에 다른 사람 없이 혼자 수면하면 「혼자」, 함께 자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모두 기입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참가자 25). 둘째 줄에서 쉽표로 연결된 뒷 문장(‘함께한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모두 기입합니다.’) 또한 앞 문장에 이어진 수면에 관한 기입안내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3> ‘함께 한 사람’ 기입지침

	지침 읽기 ¹⁾	‘함께 한 사람’ 응답기준		기입지침 의문사항
		수면 외 행동	수면	
참가자 3	읽음	행동과 관련된 사람	「혼자」 * (상황) 같은 방에 배우자, 다른 방에 자녀 취침 중	(전체) 첫 줄의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를 의미한다’, 둘째 줄의 ‘수면은 「혼자」로 기입’ 문구가 연계되어 헷갈림 → 첫 줄에서 집이라는 공간에 같이 있으나 각자 다른 행동을 많이 하므로 어떻게 적어야 할지 애매한데, 둘째 줄에서 수면은 「혼자」 기입 안내를 보고 혼자 한 행동은 「혼자」로 응답하는지 의문 생김 ☞ 첫 줄과 둘째 줄의 안내는 상호 모순된다 생각함

	지침 읽기 ¹⁾	‘함께 한 사람’ 응답기준		기입지침 의문사항
		수면 외 행동	수면	
참가자 25	안 읽음	집 안에 같이 있는 사람	10세 미만 자녀 * (상황) 같은 방에 자녀 거실에 배우자 취침 중	(둘째 줄) ‘수면은 「혼자」로 기입하며, 함께 한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모두 기입합니다.’ 문구 혼란스러움 → 주위 다른 사람 없이 혼자 수면하면 「혼자」, 함께 사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모두 기입으로 생각함

주: 1) ‘함께 한 사람’ 기입지침은 전체 참가자(26명) 중 12명이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의 경우에는 프로빙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읽어보도록 지시하여 의문을 제기하는지 반응을 살펴보았다.

3. 기타

생활시간조사 조사표의 전반부는 가구와 개인에 관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 관련 사항 중 문9-1은 일자리의 분류(법인 등, 개인사업체 여부)를 파악하는 항목으로 2018년 2차 시험조사에서 처음 조사되었고, 본 연구에서 검토한 2019년 조사표(안)에는 개인사업체를 설명하는 지침이 추가되었다([그림 13]). 인지면접 결과 사립인 유치원과 학교를 현재 조사표에 제시된 ‘ 영리법인(회사),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 정당, 의료법인,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항목으로 응답하기 애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참가자 24, 25).

● 문9-1 응답혼란 사례

직장: 사립 유치원, 응답: 영리법인(회사) 등(참가자 24)

→ (이유) 정부보조 받아 정부관련기관으로 생각했으나, 개인이 운영하므로 애매

직장: 사립 고등학교, 응답: (무응답)(참가자 25)

→ (이유) 학교가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인지 미확신, 특히 사립고여서 더욱 애매

9-1 귀하가 일을 한 곳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영리법인(회사),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 정당, 의료법인,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개인사업체(비법인, 자영업체)

참고 개인사업체

-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이 혼자 소유, 경영하거나 법인격을 갖추지 않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
개인 경영주의 책임 아래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대리점, 특약점, 기맹점 등도 여기에 해당됨

[그림 13] 문9-1 일자리의 종류

제4장 종합논의

2019년은 제5차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는 해이다. 그간 통계청은 2017년 1차 시험조사를 시행하고, 2018년에는 통계개발원에서 수행한 인지면접을 통한 1차 시험조사표 검토 연구 후 2차 시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2019년 생활시간조사조사표(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연구는 2018년 인지면접 연구에서 살펴본 조사표와 비교해 2019년 조사표(안)에서 변경된 항목에 대한 응답과정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핵심적인 변경 항목은 시간일지에 속한 ‘감정 상태’와 ‘함께 한 사람’ 항목이다.

이 연구는 조사표 응답내용에 관해 응답자와 일대일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인지면접 방법을 적용하였다. 2일(48시간) 동안의 시간사용을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는 생활시간조사 특성상 인지면접 참가자에게 조사표를 사전 배부하고, 2일간 시간일지를 완성해서 면담에 오도록 안내하였다. 면담은 사전에 준비한 프로빙 지침에 따라 진행하고, 면담 완료 후 프로빙 결과를 분석하여 조사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감정 상태’ 항목

‘감정 상태’ 항목은 2019년 조사표(안)을 의미하는 원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시간일지 내에 포함되어 10분 단위로 행동을 기입하고 해당 시간에 대한 기분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2019년 ‘감정 상태’ 원안은 시간일지 부가항목으로 시간일지 작성일 전체와 제시된 8가지 행동분류에 관한 기분을 7점 척도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감정 상태’ 추가안은 인지면접 진행 중 도입된 새로운 형태로, 시간일지 작성일의 전체 기분을 7점 척도로 질문한 후 기분이 가장 좋았던, 좋지 않았던,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던 각각의 행동과 발생 시간, 감정 정도(3점 척도)를 조사한다. 인지면접에서는 이와 같이 변경된 원안과 추가안에 대한 응답과정을 각각 검토하였다.

● 원안

‘감정 상태’ 원안은 3가지 응답특성이 도출되었다.³⁴⁾ 첫째, 다른 범주의 행동을 근거로 기분을 응답하는 행동분류 혼동이 발생하였다. 둘째, 시간일지 작성일에 특정 분류의 행동을 했음에도 해당 범주에 대한 기분을 응답할 때 그 행동을 고려하지 않는 누락이 나타났다. 이러한 행동분류 혼동과 누락을 사전에 우려하여 항목 하단에 일부 행동분류에 관한 설명과 예시가 참고사항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상기된 문제를 방지하는데 한계

34) 참가자에 따라 각 응답특성이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나타나거나,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 있었다. 셋째, 시간일지 작성일에 한 행동에 한정해서 그에 관한 기분을 묻는 질문 의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현상이 몇 가지 양상으로 관찰되었다.

원안에 대한 세 가지 응답특성은 사후 내용검토 과정에서 검증이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시간일지 내용과 범주별 응답을 비교해 일지에 해당 범주의 행동이 기입되어 있음에도 「해당 없음」을 선택하거나, 반대 상황인 경우는 오류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 그러나 이 외의 대다수 조사결과는 주관적인 응답이므로 인지면접과 같이 응답과정에 대한 면밀한 프로빙이 수반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내재된 문제 인식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원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행동분류 혼동과 누락의 근원을 생각해 보면 응답자에게 정확한 응답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현재 원안은 응답자 스스로 시간일지 작성일 하루 동안의 모든 행동에 대해 제시된 8개 범주의 명칭(예. 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등)과 참고사항에만 의존하여 각 범주에 해당하는 행동을 선별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안의 8개 범주는 생활시간조사의 행동 대분류와 일치³⁵⁾하는데, 이러한 분류에 숙련되지 않은 일반인이 각 범주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행동 사례를 인식하고 다른 범주와 구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 추가안

다음으로 ‘감정 상태’ 추가안은 원안과는 다른 7가지 특성이 확인되었다.³⁶⁾ 첫째, 추가안에 기입한 행동 문구 또는 시간과 해당 행동에 관한 시간일지 기입내용 간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시간일지에 적은 두 개 이상의 순차적인 행동을 총괄한 행동과 시간을 추가안에 응답하였으며, 행동은 시간일지에 기입하지 않은 새로운 문구로 기입하였다. 셋째, 시간일지에 표시된 한 개 행동의 전체 시간 중 일부 시간을 기입한 것으로, 추가안의 행동 문구는 시간일지의 기입내용과 동일하거나 추가안에 응답한 시간 동안의 세부적인 행동이나 상황을 새로운 문구로 표현하였다. 넷째, 시간일지에 제시되지 않은 신규 행동을 기입하였다. 다섯째, 시간일지를 작성일에 한정하지 않고 ‘평소’ 생활을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감정 상태를 경험하는 행동이나 상황을 기입하였다. 여섯 번째, 무응답으로, 각 감정 상태별 세부 항목인 행동, 시간, 정도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한 질문의 세부 항목(행동, 시간, 정도) 모두 공란으로 남긴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1-2/5-2(기분이 가장 좋지 않은 행동)와 문1-3/5-3(스트레스 가장 많이 받은 행동) 응답내용이 동일한 경우가 나타났다.

추가안 또한 다수의 응답에서 조사결과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점이

35) 생활시간조사 행동 대분류 중 ‘개인유지’는 제외하였다.

36) 원안과 마찬가지로 참가자에 따라 각 특성이 단독 혹은 복합되거나,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나타났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행동 문구 또는 시간과 시간일지 기입 간 차이와 세부 항목 일부 누락을 포함한 이러한 문제들은 개방형 질문으로 응답내용을 직접 기입해야 하는 추가안의 구조에서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원안과 달리 추가안은 사후 내용검토를 통해 위와 같은 문제를 검증하고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시간일지에 적은 내용과 추가안 응답을 비교하여 사소한 기입 차이, 총괄적 또는 세분화된 행동 기입, 신규 행동 제시 등의 문제가 발생한 상황을 인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정 상태’에 관한 원안과 추가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원안은 사후적인 내용검토를 통해 보완될 가능성이 낮고, 정확한 응답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로 생각된다. 추가안은 사후 내용검토 과정에서 내재된 문제를 검증하고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감정 상태’ 조사방법으로 2019년 조사표(안)에 수록된 원안의 대안으로 새로 구성된 추가안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추가안을 실제 조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응답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시간일지를 작성일에 한정하지 않고 ‘평소’ 생활을 기준으로 응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안의 모든 질문에 시간일지 작성일에 관해 묻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명시해 강조할 수 있다. 이 밖에 응답자에게 제공하는 기입요령서에 추가안 작성방법을 예시를 통해 안내하는 것과, 조사원 사전 교육을 강화하여 시간일지를 배부할 때 기존 안내사항에 추가안 내용을 더해 강조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 ‘함께 한 사람’ 항목

‘함께 한 사람’은 2018년 2차 시험조사에서 주된 행동을 같이 한 사람 조건이 삭제됨에 따라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으로 조사개념의 포괄범위가 확대되었고, 이러한 변경사항은 2019년 조사표(안)을 설계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인지면접 결과 참가자 본인의 행동과 관련된 사람, 다시 말해 주행동을 같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행동의 상대방, 동시행동을 같이 한 사람, 동시행동의 상대방까지 함께 한 사람으로 포함한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었다. 다만 해당 참가자 중 일부 응답은 조사개념 변경 전과 같이 주행동을 같이 한 사람에 한정된 경우도 있어 응답기준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 참가자는 집에서 발생한 행동에 대해 대상과 본인 행동과의 연관성은 물론 가까이에 있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행동 당시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모두 ‘함께 한 사람’으로 응답하였다.

‘함께 한 사람’에 대한 확대된 조사개념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으로, 행동분류 코드에 차이가 있더라도 응답자가 ‘공유’했다고 판단하면 함께 한 사람으로 포함한다. 이러한 변경사항에 비추어 보면 함께 한 사람은 행동 관련자로만 한정되지 않고, 또한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조건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인지면접 참가자들은 대체로 전자인 행동 관련자로 응답대상을 제한하거나, 일부는 후자와 같이 집 안 전체에 같이 있었던 사람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확대된 조사개념인 공간을 함께 한 사람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가 모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함께 한 사람’ 조사개념은 유럽통계청(2019)에서 권고한 가까이(on hand) 있는 사람이라는 정의를 참조하여 변경되었다. 그러나 공간을 함께 한 사람에 대한 보다 정교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해 보인다. 행동과 관련되지 않아도 함께 있었다고 생각하면 포함하고, 단지 집 안에 같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사용하고 있는 ‘함께 한 사람’에 대한 정의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방에 같이 있었던 사람 또는 동행한 사람(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8; 2019), 일본의 경우 대화를 하려고 하면 이야기가 가능한 거리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Statistics Japan, 2016).³⁷⁾

한편 시간일지 도입부의 ‘함께 한 사람’ 기입지침 중 다른 행동과 달리 모두 혼자 한 것으로 조사하는 수면 시 응답방법과, 수면 외 행동에서 함께 한 사람이 여러 명일 때 해당 사람을 모두 표시하라는 안내가 한 문장에 복합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응답자에게 혼란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면일 때와 수면 외 행동 시 함께 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각각에 대한 기입지침을 별개의 문장으로 분리하여 서로 다른 상황에 관한 안내임을 명확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 차례 인지면접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두 차례 이상의 순차적인 인지면접을 실시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조사표 확정 및 추진계획 수립 등 2019년 조사 준비 일정과 연구기간 조율이 후속 인지면접을 실시하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 다만 한 번의 인지면접에 참가한 26명은 적은 수가 아니다.³⁸⁾ 또한 인지면접 진행 중 참가자와의 면담과정을 조사 담당부서에서 참관하고, ‘감정 상태’ 항목에 대한 새로운 안내를 추가하여 검토하는 등 효과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주의를 기울였다.

이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변경된 조사항목에 대해 응답자 입장에서 평가가 진행되

37) 미국과 일본 생활시간조사의 ‘함께 한 사람’ 관련 내용 원문

- 미국 질문) Who was in the room with you? / Who accompanied you?(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8)

정의) For most activities, the interviewer also asks who was in the room or accompanied the respondent during the activity and where the activity took place(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9).

- 일본 정의) "Being together" means that the person was so near as to talk with the respondent(Statistics Japan, 2016).

38)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은 면접 대상자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2~15건이면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Willis, 2005).

었다는 점이다. 변경 항목을 응답자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으며, 발생한 오류는 무엇인지 등을 심도 있게 파악하였다. 특히 변경 항목 중 ‘감정 상태’는 2018년 2차 시험조사 후 변경되어 2019년 조사까지 대규모 현장 시험조사를 통한 사전 검토가 불가능한 점이 본 연구를 추진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변경 항목에 대한 응답특성과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 완성도 높은 조사표를 설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 통계청(2016). 2014 생활시간조사 이용자 가이드라인.
- 통계청(2017). 2017 생활시간조사 시험조사 조사지침서.
- 통계청(2018). 2019년 제2차 시험조사 생활시간조사 지침서.
- Bureau of Labor Statistics(2018). American Time Use Survey Questionnaire 2011-17.
- Bureau of Labor Statistics(2019). American Time Use Survey User's Guide Understanding ATUS 2003 to 2017.
- Eurostat(2019). Harmonised European Time Use Surveys 2018 Guidelines.
- Statistics Japan(2016). Survey on Time Use and Leisure Activities 2016. Explanation of Terms (Questionnaire B). <https://www.stat.go.jp/english/data/shakai/2016/yogo.html>.
- Tourangeau, R.(1984). Cognitive science and survey methods. Cognitive aspects of survey methodology: Building a bridge between disciplines, 73-100.
- Willis, G. B.(2005). Cognitive interviewing: A tool for improving questionnaire desig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부 록>

1. 유럽통합생활시간조사 2018 가이드라인 ‘감정 상태’ 조사항목 권고(안)

2	What was the most pleasant activity described in the diary?	_____ __ __ __ PL
3	What was the most unpleasant activity described in the diary?	_____ __ __ __ NP
4	What was the most stressful activity described in the diary?	_____ __ __ __ ST
5	Overall, how do you appreciate this day?	EG
	<input type="checkbox"/> 1 Very pleasant	
	<input type="checkbox"/> 2 Pleasant	
	<input type="checkbox"/> 3 Neither pleasant nor unpleasant	
	<input type="checkbox"/> 4 Unpleasant	
	<input type="checkbox"/> 5 Very unpleasant	

자료: Eurostat, 2019, 110.

[부그림 1] 유럽통합생활시간조사 2018 가이드라인 ‘감정 상태’ 조사항목 권고(안)

2. ‘감정 상태’ 조사항목 추가안에 대한 인지면접 참가자 응답내용 및 특성

참가자	구분	전체	좋은	응답특성	좋지 않은	응답특성	스트레스	응답특성
10 ¹⁾	첫째 날	상당히 좋음	아이들과놀이		집정리하기		아이들양치질	
			18시부터 19시 까지		22시부터 22시 30분까지		23시부터 23시 20분까지	
			-	-	-	-	-	-
	둘째 날	상당히 좋음	TV시청		집안정리		아이들재울준비	
			00시부터 01시까지		19시 30분부터 20시까지		20시 30분부터 20시 40분까지	종료시간 차이
			-	-	-	-	-	-
11	첫째 날	보통	친구만날때에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없음	해당 사항 없음
			4시부터 7시까지	시작시간 차이				
			상당히 좋음					
	둘째 날	보통	큰애와대화할 때	신규 행동 기입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없음	해당 사항 없음
				누락				
			약간 좋음					

참가자	구분	전체	좋은	응답특성	좋지 않은	응답특성	스트레스	응답특성
12	첫째 날	상당히 좋음	친구만남	총괄 행동 기입	업무시 ★		업무시 ★	
			11시 30분부터 1시 40분까지	시작시간 차이	2시 00분부터 2시 10분까지	일부 시간 기입	2시 00분부터 2시 10분까지	일부 시간 기입
			매우 좋음		상당히 나쁨			누락
	둘째 날	상당히 좋음	첫째 친구네 방문	총괄 행동 기입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0시 30분부터 1시 00분까지	종료시간 차이				
			매우 좋음					
13	첫째 날	매우 좋음		누락		해당 사항 없음		누락
			6시 30분부터 9시 00분까지				7시 00분부터 8시 30분까지	
			상당히 좋음				상당히 받음	
	둘째 날	매우 좋음		누락		해당 사항 없음		누락
			6시 30분부터 7시 00분까지	종료시간 차이			9시 00분부터 11시 00분까지	
			상당히 좋음				매우 많이 받음	

참가자	구분	전체	좋은	응답특성	좋지 않은	응답특성	스트레스	응답특성
14	첫째 날	약간 좋음	상담할때		손님이약속어졌을때	행동 문구 차이	손님이거짓말할때	신규 행동 기입
			15시 20분부터 15시 55분까지	일부 시간 기입	10시 40분부터 11시 00분까지	일부 시간 기입	14시 00분부터	종료시간 누락
			매우 좋음		상당히 나쁨		상당히 받음	
	둘째 날		동서와시동생만남		휴게소에서담배	신규 행동 기입	죽음을생각할 때	신규 행동 기입
			11시 40분부터 12시 20분까지	시작 시간 차이 종료 시간 차이	14시 30분부터 14시 40분까지		14시 00분부터	종료시간 누락
			매우 좋음		약간 나쁨		약간 받음	
15	첫째 날	보통	선샤인랜드구경	행동 문구 차이	집으로귀가해서정리할 때 ★	총괄 행동 기입	나갔다왔을때집이지저분할때 ★	총괄 행동 기입
			3시 00분부터 4시 00분까지		밤10시 0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밤10시 0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매우 좋음		약간 나쁨		약간 받음	
	둘째 날	보통	TV시청		혼자집안일할때분리수거		아이들데리고 영화관람	
			밤8시 00분부터 9시 10분까지		7시 40분부터 8시 00분까지		1시 40분부터 3시 20분까지	
			약간 좋음		약간 나쁨		매우 많이 받음	

참가자	구분	전체	좋은	응답특성	좋지 않은	응답특성	스트레스	응답특성
16	첫째 날	상당히 좋음	예배, 설교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3시 00분부터 4시 20분까지, 10시 0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복수응답 (단, 행동 동일)				
			매우 좋음					
	둘째 날	매우 좋음	예배, 설교, 딸생일, 아들탁구	복수응답	보험사직원과 통화			해당 사항 없음
				누락		누락		
				누락	약간 나쁨			
17	첫째 날	매우 좋음	농구동호회참석	총괄 행동 기입	와이프꾸지람 ★	행동 문구 차이	와이프꾸지람 ★	행동 문구 차이
			9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13시 30분부터 14시 00분까지	시작시간 차이	13시 30분부터 14시00분까지	시작시간 차이
			매우 좋음		약간 나쁨		약간 받음	
	둘째 날	약간 좋음	저녁모임	총괄 행동 기입	업무스트레스 ★	행동 문구 차이	인간관계트러블 ★	행동 문구 차이
			19시 20분부터 22시 40분까지		10시 2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일부 시간 기입	10시 2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일부 시간 기입
			약간 좋음		약간 나쁨		상당히 받음	

참가자	구분	전체	좋은	응답특성	좋지 않은	응답특성	스트레스	응답특성
18	첫째 날	약간 나쁨	고양이와놀아주기		화장실청소(알바) ★		화장실청소 ★	
			15시 50분부터 16시 20분까지		23시 30분부터 23시 50분까지		23시 30분부터 23시 50분까지	
			상당히 좋음		상당히 나쁨		약간 받음	
	둘째 날	약간 좋음	고양이와놀아주기		화장실청소 ★		화장실청소 ★	
			17시 00분부터 17시 20분까지		23시 00분부터 23시 20분까지		23시 00분부터 23시 20분까지	
			상당히 좋음		상당히 나쁨		약간 받음	
19	첫째 날	보통	외출준비		지인분과통화할때		큰애차로이동할때	
			8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	종료시간 차이	5시 00분부터 5시 10분까지	종료시간 차이	8시 50분부터 9시 20분까지	종료시간 차이
			매우 좋음		약간 나쁨		약간 받음	
	둘째 날	보통	누워서척추운동할 때		음식물쓰레기버릴 때		버스기다릴때	
			21시 20분부터 21시 50분까지		21시 50분부터 22시 00분까지		12시 30분부터 12시 40분까지	
			매우 좋음		약간 나쁨		약간 받음	

참가자	구분	전체	좋은	응답특성	좋지 않은	응답특성	스트레스	응답특성
20	첫째 날	약간 좋음	카페에서 빵먹기		컴활공부		컴활시험	
			15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1시 10분부터 4시 00분까지	중간에 다른 행동 시간 포함	13시 30분부터 15시 00분까지	시작시간 차이
			상당히 좋음		약간 나쁨		상당히 받음	
	둘째 날	상당히 좋음	미용실에서 머리하기		옷정리		탕후루만들기	
			16시 20분부터 18시 00분까지	시작시간 차이	18시 20분부터 19시 00분까지		20시 00분부터 21시 00분까지	
			상당히 좋음		약간 나쁨		약간 받음	
21	첫째 날	보통	산책	신규 행동 기입		해당 사항 없음	일이풀리지않을때	평소 기준 기입
				누락				누락
			상당히 좋음				상당히 받음	
	둘째 날	보통	산책	평소 기준 기입		해당 사항 없음	일이풀리지않을때	평소 기준 기입
				누락				누락
			상당히 좋음				상당히 받음	

참가자	구분	전체	좋은	응답특성	좋지 않은	응답특성	스트레스	응답특성
22	첫째 날	약간 좋음	여가활동	행동 문구 차이	아이가올때	수시 상황 기입	아이들이싸울때	수시 상황 기입
			06시 00분부터 07시 00분까지			누락		누락
			상당히 좋음		상당히 나쁨		매우 많이 받음	
	둘째 날	약간 좋음	남편이칭찬할 때	타인 행동 기입	시어머니께꾸중들 을때	신규 행동 기입	시부모님이언성높 이실때	타인 행동 기입
			22시 40분부터 23시 00분까지		16시 00분부터 16시 20분까지		19시 30분부터 20시 00분까지	
			매우 좋음		매우 나쁨		매우 많이 받음	
23	첫째 날	보통	납품이순조롭게이 뤄질때	평소 기준 기입	납품이적어배송이원 활하지못할 때 ★	평소 기준 기입	업무중고객과의마 찰 ★	평소 기준 기입
			15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12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12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상당히 좋음		약간 나쁨		상당히 받음	
	둘째 날	약간 좋음	배송이원활하게 이뤄질때	평소 기준 기입	업무중크레임 발생 ★	평소 기준 기입	업무중고객과의 미찰 ★	평소 기준 기입
			15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12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12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약간 좋음		약간 나쁨		상당히 받음	

참가자	구분	전체	좋은	응답특성	좋지 않은	응답특성	스트레스	응답특성
24	첫째 날	보통	교육 끝나고 자유롭게 행동	총괄 행동 기입	의무적으로 행동	총괄 행동 기입	장래일, 아침 준비	
			8시 00분부터 10시 00분까지	종료시간 차이	6시 50분부터 8시 00분까지	시작시간 차이	6시 20분부터	종료시간 누락
			약간 좋음		약간 나쁨		약간 받음	
	둘째 날	보통	교육생들과 같이 점심식사	총괄 행동 기입	남편과 갈등 (생각 차이)	총괄 행동 기입		해당 사항 없음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7시 00분부터 8시 00분까지	종료시간 차이		
			약간 좋음		약간 나쁨			
25	첫째 날	보통	오후 퇴근	총괄 행동 기입	집안일	총괄 행동 기입	아이들 등원, 출근	총괄 행동 기입
			16시 30분부터 17시 00분까지		19시 00분부터 20시 30분까지	시작시간 차이 종료시간 차이	7시 20분부터 8시 50분까지	
				누락	약간 나쁨		약간 받음	
	둘째 날	약간 좋음	아이와 이야기	신규 행동 기입		해당 사항 없음	마트장 볼 때	총괄 행동 기입
			19시 00분부터 20시 00분까지				16시 30분부터 17시 00분까지	종료시간 차이
				누락			약간 받음	

참가자	구분	전체	좋은	응답특성	좋지 않은	응답특성	스트레스	응답특성
26	첫째 날	보통	유튜브시청		부동산방문 ★	행동 문구 차이	영업 ★	행동 문구 차이
			21시 00분부터 23시 00분까지		14시 00분부터 17시 00분까지	일부 시간 기입	14시 00분부터 17시 00분까지	일부 시간 기입
			매우 좋음			누락		누락
	둘째 날	보통	유튜브시청		당직근무 ★	총괄 행동 기입	영업 ★	총괄 행동 기입
			21시 00분부터 23시 00분까지	시작시간 차이 종료시간 차이	10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10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누락		누락		누락

1) 참가자 10에 대한 인지면접 후 추가안에 감정 상태 정도 질문이 신설되어 참가자 10은 해당 항목이 조사되지 않았다.

집필진

- 박주언(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 주무관)
- 박선희(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 사무관)

연구보고서 2019-17

2019 생활시간조사 변경 항목 검토 연구: 인지면접

인 쇄 2020년 5월 18일
발 행 2020년 5월 19일
발 행 인 통계개발원장 전영일
발 행 처 통계청 통계개발원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TEL.(042)366-7100 Fax.(042)366-7123
홈페이지 <http://sri.kostat.go.kr>
ISSN(Online)
